

## 발간사

창의·개발·봉사의 교육이념 아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세로 씩 없이 전진해 온 충남대학교는 어느덧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거점국립대학교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융복합 교육의 선대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이라는 찬란한 역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자강불식의 자세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고 계신 대학 구성원, 헌신과 희생을 실천하며 충남대학교의 발전을 견인해 오신 선배님,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며 모교를 빛내주시는 20만 동문, 조건 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역민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대학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의미는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이 지혜의 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충남대학교의 역사를 오롯이 담은 '충남대학교 70년사'는 역사로서 과거를 담은 기록물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증명한 충남대학교의 역사와 우리를 뛰게 했던 열정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70년을 넘어 미래 100년 대학으로서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70년사를 바탕으로 삼아 'CNU 100년, 위대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기치로 미래 100년 대학으로서 우리가 현재 마주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K-Edu 대표 대학',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 '지역 성장 주도 혁신 대학', '초광역 캠퍼스 완성' 등 4가지의 목표를 이뤄 충남대학교를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교'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역사는 세로축인 '시간', 가로축인 '사람'의 조화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충남대학교 구성원과 동문, 지역민이야말로 충남대학교 70년 역사의 증거이며, 미래 '100년 CNU'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입니다. 2022년 개교 70주년을 맞은 이 순간, 2천여 교직원, 2만여 재학생, 20만 동문, 400만 대전·세종·충남 지역민과 함께 미래 100년 대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충남대학교 70년사'는 개교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70년사 편찬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물심양면으로 발간 작업을 지원해주신 개교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김기수, 이찬용 위원장님과 70년사가 발간되기까지 흠어져 있는 기록을 모으고 엮어주신 이형권 편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남대학교 70년사가 혁신의 선두에 선 대학,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명품 충남대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지침서가 되길 소원합니다.

2022년 7월

충남대학교 총장 이진숙